

어울림·원도심학교 발전방안 찾는다

전북도교육청, 담당자 원탁토론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 어울림학교·원도심학교 담당자 원탁토론을 갖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전주 N타워 컨벤션에서 열린 원탁토론에는 도내 어울림·원도심학교 담당 및 참가 회원 170여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어울림학교 및 원도심학교 설립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초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학교의 유형 및 프로그램이 정립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원탁토론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의 지도형 컨설팅보다는 어울림학교 및 원도심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취지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어울림학교 및 원도심학교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평가결과 분석

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유행과 지역을 고려해 10명 내외로 모임을 구성해 ▲학교문화의 방향 ▲기대하는 학교의 변화 ▲마을교육 과정에 대하여 ▲운영사례 및 평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 뒤, 각 모듈별 토론 결과를 정리·분석해 내년도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2부에서는 흥동중학교 안도길 교사가 '마을교육과정의 실제'를 주제로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원탁토론 참석자 집회를 대상으로 ▲어울림학교 또는 원도심학교의 운영 방향 ▲어울림학교 또는 원도심학교

교의 철학 ▲교육청에 대한 건의사항과 향후 지원 방향 ▲기타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묻는 사전 설문조사서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심문에서 "어울림·원도심학교는 힘들고 고된 업무의 연속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어울림·원도심학교의 학생 수가 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제공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교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우수하고 다양한 사례 공유와 지역자원정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속과 연계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소통하는 가족문화 형성 앞장

전북도교육청 '2016년 너드나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이 11월 23일 오후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너드나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로 선정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상장 및 상품을 수여했다. 이번 너드나도 공모전은 홍보 문화 확산과 소통하는 교육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접수 받았다.

공모전에는 웹툰 106편, 사진 427편, 체험기 107편, 동영상 73편, 동시 243편 등 총 950편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각 분야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입선 5편 등 총 55편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전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작품을 응모해 모든 교육가족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교육현장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은 전북교육을 홍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북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입선작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시스템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켜"

김승환 교육감, 대통령 퇴진 촉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검찰이 지난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켜버렸다"면서, 대통령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정도면 대통령이 물러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질구래한 항변을 쏟아내고 있다.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돈을 내라고 했다. 기업들은 세부조사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고 한다"면서 "이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권위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범죄행위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사이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들은 뭘했나? 이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자격이 있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참모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병우가 범죄증거를 파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은 아이들의 삶에 귀감이 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우리 전북교육청은 현존건도 놓치지 말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 학원 교습비 내년부터는 밖에서도 확인

내년부터는 학원의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 기준을 학원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부터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부와 외부에 명확히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출입구 주변 ▲육의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등에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로 이어 2차 과징금지되며, 3차 위반하면 편 등록말소·폐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교습비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교습 시작 후에는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전북, 고1,2학년 학생부전형 대비 독서·철학 성장프로그램 수료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던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프로그램'이 수료식을 갖고 마무리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7일 2층 대강당에서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프로그램' 독후 주제 탐구 보고서 발표회 및 특강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전주 군산 익산 고1,2학년 280명에 대한 매주 일요일 20차시, 60시간 진행됐던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전체 60시간 중 80%이상 참여 학생들이 전 과정 모두 수료증이 전달됐으며 학생생활기록부 교과과목발달상황 '독서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수료 내용을 기재할 예정이다.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이 인문, 자연 등 12개 분야와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관심분야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전화 응대 친절해요"

도교육청, 친절도 조사 결과 발표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93.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매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분청 96.4점 ▲직속기관 93.9점 ▲교육지원청 96점 ▲학교 93.1점으로 모든 기관에서 고우 우수하나, 일부 기관과 항목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니터단이 추천한 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연발로 교육감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전화 친절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처리사항 전반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평가·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두가 행복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4일부터 한달간 전북교육청 학부과정 모니터링단으로 도내 모든 교육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신후조사 결과까지 응대과정별로 10개 항목에 대해 전화로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도교육청, 30일 평준화

일반고 원서접수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16일에는 고입 선발고사가 실시된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개 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30일 원서 접수와 선발고사를 거쳐 내신성적 70점, 선발고사 180점을 합쳐 (250점 만점) 합격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주 6,913명, 군산 1,674명, 익산 1,800명 등 총 10,387명이다. 고입선발고사 문제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연합 공동으로 출제하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채득을 제외한 9과목을 출제한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 학 / 스마트 체험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유명회사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지연

010-5488-2617
seohatech@naver.com
1995-2017
TEL: 908-111-911